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10-273호)

마이다스옵티멈장기증권저축투자회사

2010년 06월

Fund Facts

투자 목적	현물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는 옵션프리미엄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률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운용개시일	2001-10-26
펀드 규모	23 억원
총보수	순자산평잔의 연 2.32%
환매수수료	없음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옵티멈장기증권저축투자회사	3.54%	1.93%	3.40%	25.56%	214.84%
참고지표	2.71%	0.55%	1.79%	17.92%	172.35%
초과수익률	0.83%	1.38%	1.62%	7.64%	42.48%

※참고지표: KOSPI변동률*75%+CD금리*25%

수익률 추이

(2001.10.25~2010.06.30)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6월 한 달간 펀드 수익률은 3.54% 였으며, 동기간 참고지표의 변동률은 2.71% 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지표 대비 수익률이 높았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종의 주가 반등을 예상하여 건설업종 편입비중을 시장 보다 높게 가져 갔으며, 글로벌 경제 회복과 실적 모멘텀으로 큰 폭 반등한 운수업종의 편입비중도 높았습니다. 둘째 시장 대비 보유 비중이 높았던 한진해운, 효성, 대한항공 같은 우량주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셋째, 개별종목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다음, 호텔신라, 오리온 같은 일부 중형주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주식 시황

남유럽 금융위기와 중국의 긴축 정책에 따른 거시경제지표의 둔화, 미국의 고용지표 등으로 국내증시도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악재에 대해 시장이 둔하게 반응하고 국내 증시의 저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환율이 안정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도 순매수로 전환하며 지수는 완만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지수가 전고점 수준인 1750pt에 근접하자 리테일펀드의 환매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저가 매력에 따른 연기금의 자금유입으로 큰 하락없이 월간 3.48%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화학, 건설, 섬유, 제약, 서비스, 유통, 기계, 운수장비, 음식료, 종이 등 업종이 상대성과가 양호하였고, 연초 이후 주도업종으로 볼 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과 아울러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 전기가스, 통신과 같은 저베타 종목군의 상대성과가 부진하였습니다.

종목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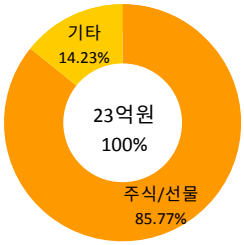
지난달은 현대모비스, 대림산업, 고려아연, 우리투자증권 등을 순매수 하였으며, 외환은행, 두산인프라코어, LG디스플레이, 한국타이어 등을 순 매도 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중 한진해운, 효성, 제일모직, 다음, 대한항공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으며, LG전자, 우리금융,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하였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주가하락 위험을 줄이고 추가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투자와 함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6월 만기 콜옵션은 행사가격 232.5에 매도 하였으며 6월 옵션 만기일 KOSPI200지수가 215.73로 종료됨에 따라 매도 콜옵션은 행사되지 않고 옵션 프리미엄 수입을 펀드 수익으로 실현하였습니다. 7월물 콜옵션은 행사가 230.0를 매도하였습니다. 7월 말 현재 매도한 콜옵션에서 현재 이익을 보고 있으나 7월 만기일까지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손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2010.06.30 기준]



상위보유종목

[2010.04.30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41.93%)

삼성전자	12.84
POSCO	4.92
현대차	4.48
LG디스플레이	3.59
KB금융	3.06
하이닉스	3.04
LG화학	2.98
현대중공업	2.56
SK에너지	2.27
기업은행	2.18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